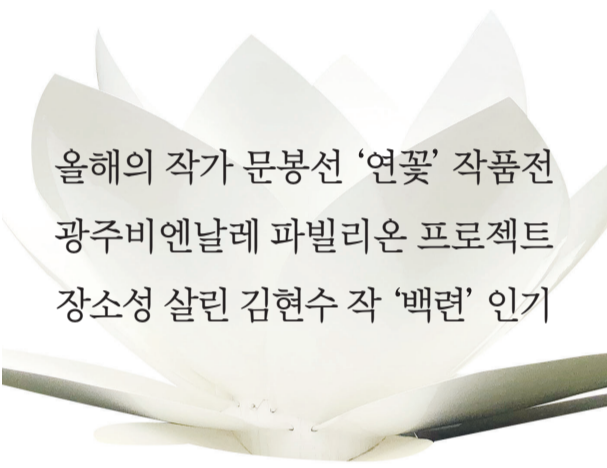




문봉선 작 '연(蓮)



올해의 작가 문봉선 '연꽃' 작품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장소성 살린 김현수 작 '백련' 인기



지난 2월 새롭게 단장된 무각사의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한국화가 문봉선의 '연꽃'전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무각사의 여름... 도심 속 사찰서 마음을 달래다

'도심 속 사찰' 무각사는 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힐링 장소다. 번잡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늘 '그자리'에서 따뜻하게 품을 내준다.

특히 신록이 우거지는 이즈음, 무각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찾는 이들로 북적인다. 지난 4월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파빌리온 전시장(제2·3전시관)과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한국화가 문봉선의 '연꽃'전(5월 26~7월 9일)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북카페와 갤러리를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3개의 전시관으로 단장된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LOTUS ART SPACE)가 그 열기의 진원지다. 지난 4월 첫선을 보인 제1전시관은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 1년간 작품전을 여는 공간으로 올해는 한국화가 무어(無어) 문봉선의 작품전이 올 봄 '물'을 시작으로 모란, 연꽃, 대나무, 소나무, 국화, 돌 등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문 작가는 무각사와 인연이 깊다. 지난 2020년 현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의 전신인 로터스 갤러리에서 매화전을 개최해 화제를 모았고,

무각사 대웅전 상량문을 쓰는 등 공주를 자주 방문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유리창 너머 뽕뽕하게 늘어선 대나무 숲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각사가 1년 여 동안 리모델링을 통해 경내의 대나무 숲 풍경을 전시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꾸민 공간이다. 창가 앞에는 나무 재질의 긴 탁자가 자리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차 한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부드러운 느낌의 나무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새 전시장은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지면서 무각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문화 습터'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의 북카페가 주로 차를 마시는 사교의 공간이었던 탓에 번잡한 느낌을 주었다면 지금의 전시관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무각사의 주지 청학스님이 오래 전부터 '공간 재구성'에 공을 들인 이유다.

제주 출신인 문 작가의 작품에는 한라산 중산간에 살았던 어릴 적 기억들이 숨쉬고 있다. 길어올린 수평선과 지평선의 감각, 변화하는

자연이 전하는 색감은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물 위로 긴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 가지의 흔들림을 표현한 작품은 수목화의 대가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열마 전 막을 내린 모란을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 그는 "모란은 봄과 여름의 경계지점에서 피는 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란을 직접 기르고 관찰하며 사색하기를 반복했다. 많이 알려진 꽃인 만큼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그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시관에서 나오면 또 하나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옛 무각사 주차장에 자리하고 있는 재목작가 김현수의 '백련'이다.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경내 곳곳에 설치된 화려한 연등행렬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다. 순백의 대형 연꽃을 형상화 한 작품은 무각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특수 코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백련'은 지름 5m 50cm, 높이 2m 40cm, 18개 꽃잎으로 이루어진 대형 조형물이다.

무각사에 '백련'이 활짝 꽃을 피게 된 데에는

청학스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다. 지난 2020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5·18 40주년 기념전 '별이 된 사람들'전에 출품된 김 작가의 '백련'을 인상 깊게 접한 청학 스님이 작가에게 구입의사를 전했다.

당시 사찰을 리모델링 중이었던 스님은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공간을 애고 대신 신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에 첫선을 보인 '백련' 앞에서는 연꽃들이와 108명 명상도 열렸다. 작품 앞에서 108배를 진행하는 이유는 종교적 의미 등을 떠나 마음을 한번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몇분만이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염원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의 바람이 통했을까. '백련' 주위에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서서히 돌며 사색의 시간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심상이면'

전하는 '심상-이면'전

31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바다는 무수한 이미지와 감정을 담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공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심상-이면'전을 개최하고 있는 전하는 작가에게도 바다는 다양한 작품의 모티프다.

전남대 한국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하는 작가의 개인전이 5월 말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 작가는 '심상-이면'을 주제로 그간 작업해온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채로운 바다의 이미지다. 바다를 매개로 한 이미지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환기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작가가 구현해낸 작품들은 저마다 특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의 제약이 뛰어넘어 무수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발견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작품 속 수다한 감정조각들로 합쳐지며 투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작가는 "내면의 시선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바다는 가장 좋은 사색의 모티프를 제공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라며 "바다와 결부된 인간의 모습은 무한할 뿐 아니라 수수께끼와 같이 감정의 조각들을 표현하게 해 주는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재현된다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 선정

조선시대 광주에서는 삼월 삼짇날 무등산 화전놀이가 전승돼왔다.

현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치에 있던 전남도청 관아에서 삼월 삼짇날 관찰사와 인근 수령들이 가마와 말을 타고 무등산 상봉까지 올라 화전놀이를 즐겼다. 이들은 놀이를 즐긴 후 저녁 늦게 햇볕과 청사초롱을 밝히고 관아로 다시 돌아왔다.

삼월 삼짇날 경치 좋은 곳서 꽃놀이를 하는 무등산 화전놀이가 재현된다. 일명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소장 한승훈 교수)가 조선시대 관찰사의 무등산 화전놀이를

재현한다.

문화유산연구소는 문화재청과 광주시가 지원하는 미래무형 문화유산 발굴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 3년간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에 따르면 화전놀이는 화전을 비롯한 각종 전라도 고유의 잔치 음식은 물론 약공, 놀이패, 가무단 및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동행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던 광주의 대표적인 종합민속예술축제였다.

연구책임자인 한승훈 교수는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는 비지정 무형유산이 관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가 재현된다.

<전남대 문화연구소 제공>

리 사각지대 속에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후대에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향후 국립공원 무등산을 빛낼 수 있는 지

역의 대표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ACC '걷기, 해매기' 기획전 연계 테마강좌

전시읽기 강연·작가와 함께하는 창작활동...6월13일 첫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3. 4관에서 걷기라는 행위를 모티브로 의미를 탐색하는 기획전시(오는 9월 3일까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한 테마강좌가 운영된다.

ACC 문화교육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걷기, 해매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강좌는 모두 4차례 '전시읽기' 강연과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활동'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첫 강연은 내달 13일(오후 2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의 저자 정지돈 소설가가 강사로 나선다. 정 작가는 '도시 속에서 걷기', '예술 속에서 걷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7월엔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방식을 경험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활동', 건축가의 눈으로 본 '전시읽기' 강연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도시 문제 해결에 힘써온 예술 창작 집단인 리스너티티와 함께 '모두를 위한

재단대응교육 퍼포먼스 창작활동'이 펼쳐진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 문화전당 대피지도를 그리고 대피 각본을 짜보는 시간이다.

이어 13일에는 '동네 걷기, 동네 계획'의 저자 서울대 건축학과 박소현 건축가가 이야기를 풀어간다. '동네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얼마나, 왜 걸을까?'라는 질문을 모티브로 좋은 동네와 걷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장소를 관찰하며 시간성과 장소성을 기록하는 작업도 펼쳐진다. 20일 강동주 작가의 '시간과 공간을 담은 그리기 창작활동'은 주변 장소를 매개로 시간성과 장소성을 기록하는 작업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걷기, 해매기'는 '걷기'라는 행위의 다양한 해석을 담은 의미있는 전시로 걷기의 양상과 보행 이야기 등 사회 문화적 쟁점을 표현하는 장"이라며 "걷기라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가이자 해직언론인 최일남 씨 별세

신군부 언론탄압 1980년 해직...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 역임

이상문학상, 김동리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이자 해직기자 출신인 최일남(사진) 소설가가 지난 2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북 전주 출신인 고인은 남도의 토속어를 가장 깊이 있게 작품에 투영한 작가이자 해학성이 두드러진 작품을 발표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전주사범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문단 데뷔는 지난 1953년 '문예'지에 '썩 이야기'를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1956년 '현대문학'에 '파양'을 추천받고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사람들'을 비롯해 '해치는 소리', '잊을수 없는 밥 한 그릇' 등 다수의 단편집과 '거룩한 응답', '하얀 손', '국화밭에서' 등 장편 소설을 펴냈다.

또한 고인은 지난 2008~2010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촌문화상, 한무숙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언론인으로서의 발자취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을 거쳐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그는 1980년 신군부 언론탄압으로 동아일보 편집부장과 문화부장을 겸하던 중 해직을 당했다.

이후 1984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복직했으며 1988~1991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을 지냈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문순태 소설가는 "고인은 그동안 생존해 있던 작가 중에 남도 토속어를 가장 깊이 있게 구사하는 소설가 중 한 분이었다. 작가회의를 이끌어온 중추적인 작가로 해학적인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며 "서울에 거주했지만 지역정서를 작품에 투영하는 등 호남 작가들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분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오래 기억해야 할 소설가"라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